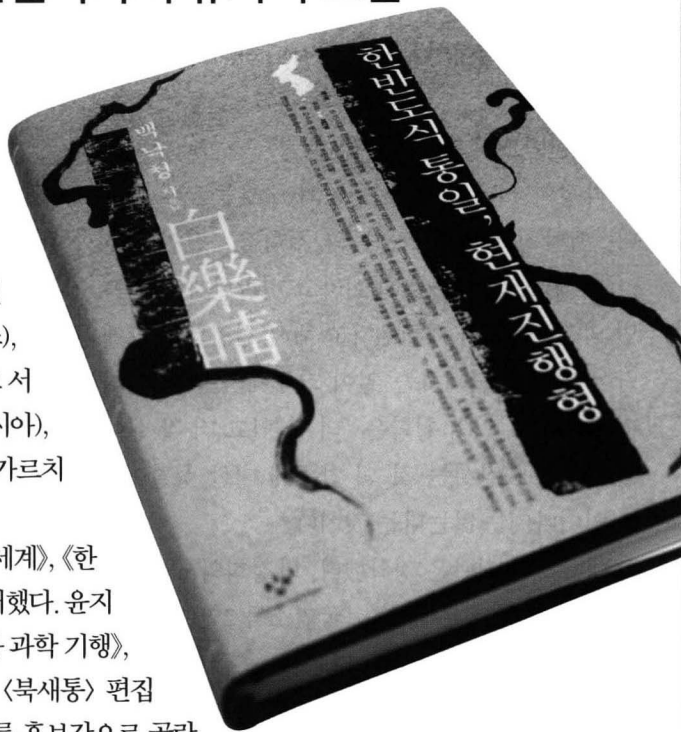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통일, '우리삶의 질적 도약 담보' ... 분단극복의 유기적 고찰

〈출판저널〉은 6월 '이 달의 책' 선정을 위해 김병후의 《아버지를 위한 변명》(리더스북) 등 9권을 후보 도서로 골라, 선정위원들에게 위촉했다. 〈출판저널〉이 고른 책은 《아버지를 위한 변명》을 비롯, 김훈의 소설 《강산무진》(문학동네), 고미숙의 《나비와 전사》(휴머니스트), 김열규의 《한국인의 자서전》(웅진지식하우스), 최준식의 《죽음, 또 하나의 세계》(동아시아), 손석춘의 《과격하고 서툰 사랑 고백》(후마니타스), 문중양의 《우리역사 과학기행》(동아시아), 백낙청의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창비), 김수업의 《배달말 가르치기》(나라말) 등이다.

이들 가운데 박상의 교수(우석대 서양학과)는 《죽음, 또 하나의 세계》,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아버지를 위한 변명》을 차례대로 천거했다. 윤지관 한국문학번역원장은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우리 역사 과학 기행》, 《과격하고 서툰 사랑 고백》 등 세 권의 순서로 추천했다. 신중호 <북새통> 편집장은 《한국인의 자서전》, 《죽음, 또 하나의 세계》, 《나비와 전사》를 후보감으로 골랐다. <중앙일보> 조우석 부장(문화부)은 《우리역사 과학기행》, 《나비와 전사》,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을 각기 '이 달의 책'에 오를만한 양서로 들었다.



선정위원 네 분 가운데 윤지관 원장이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을 으뜸으로 꼽은 데 이어, 박상의 교수와 조우석 부장 역시 이를 추천했다. 이 밖에 《죽음, 또 하나의 세계》, 《우리 역사 과학 기행》, 《나비와 전사》가 각각 두 분에 의해 추천됐다. 이런 결과에 바탕해 〈출판저널〉은 백낙청의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을 '이 달의 책'으로 확정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박상의 교수가 새롭게 '이 달의 책' 선정위원으로 위촉된데 이어, 이 달부터 윤지관 한국문학번역원장도 선정위원으로 수고해주시기로 했다.

선정위원 도서 추천의 변

■ 박상의(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

△《죽음, 또 하나의 세계》

시인 롱펠로(Longfellow)는 '인생 찬가'에서 "삶은 현실이다!"(Life is real!)라고 읊었다. 그러나 죽음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구절을 "죽음은 현실이다!"(Death is real!)라고 바꿔도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그리고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린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엄존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이런 태도는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다.

최근 30여 년 동안 서양 학계에서는 죽음학, 특히 죽음 뒤의 세계를 다녀왔다고 알려진 근사체험자들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이 책은 그 동안 축적된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자 한 국내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근사체험자들이 체험을 겪고 난 후 '사랑'과 '배움'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현존하는 위대한 고등종교 창시자들의 가르침을 압축, 요약해주는 말이지만, 정작 우리 주변의 기성 종교들은 교리와 형식주의에 치우쳐 이 본질적 가르침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제도권 종교인들에게 경종을

올려준다. 동시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이 말해주듯 지나치게 현세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박정희 시대 새마을 운동의 구호는 “잘 살아보세”였다. 백낙청은 새마을운동의 철학을 ‘걸인의 철학’ (the philosophy of a beggar) 이라고 비판한다(272쪽). 기본적인 의식주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걸인의 철학에 물든 사람이 거기서 탈피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말도 덧붙인다. 걸인의 철학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보세”로 진화할 뿐, ‘잘사는 것’의 참뜻에 대한 성찰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백낙청의 진단은 정확했다. 박정희의 구호 “잘 살아보세”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으로 변했다. 2만 불이 달성되면 다음에는 “국민소득 3만 불 달성”이 나올 차례인가. 오로지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국민이 추구해야 할 유일무이한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배(腹)가 우리의 신(神)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백낙청이 그리는 한반도식 통일은 이 문제에 대한 성찰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는 분단고착론도 흡수통일론도 모두 배격한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일류국가 대한민국’ 건설이 아닌 ‘한반도의 일류사회’ 건설이다. 현재의 남과 북 어느 쪽보다 훌륭한 새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젊은 세대의 창의성과 개방성과 진취성이 제대로 살아나는 사회이다. 그것은 국가보다는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현장으로서의 ‘사회’를 앞세우는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어느 한쪽 절반만 떼어서 일류의 삶,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만한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그는 우리 삶의 질적 도약을 담보하는 통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를 위한 변명》

남성은 여성과 달리 후천적인 자극과 학습에 의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전형적인 남성의 뇌를 가진 남성은 타인의 정서적 마음을 읽는 능력이 애당초부터 뒤떨어져 있다고 한다. 게다가 남성은 자신이 아이였을 때의 아버지 모습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육아는 전적으로 여성인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13년 간 부부, 가정 문제를 상담해 온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박사가 이 시대의 ‘아버지’에 대해 말한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과 자녀에 대한 ‘친밀감’의 형성이다. 친밀감이란 가족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필요한 능력이 ‘배려’다.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아픔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잘못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아버지’인 남성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생물학적 열등성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속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아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버지학’ 또는 ‘남편학’ 교과서라고나 할까.

■ 윤지관(한국문학번역원장)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해석하고 나갈 길을 모색함에 있어 분단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역설해온 저자의 또 하나의 역저이다. 저자는 분단이 체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여 이 체제를 허무는 싸움의 민족적 세계사적인 의미에 천착해왔는데, 이 책에서도 근래의 남북관계와 세계적 환경의 변화를 분단체제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고찰하고 현단계의 통일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역사 과학 기행》

우리의 전통과학을 일반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기술해나가면서 역사를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게 한 것이 이 책의 미덕이다. 애정이 담겨 있긴 하지만 우리 과학전통이라고 마냥 상찬하지만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한 점도 돋보이고 나아가서 과학이라면 으레 서양과학을 연상하는 관념에 맞서 과학의 의미를 새롭게 질문하고 있는 것도 계몽적이다.

△《과격하고 서툰 사랑 고백》

세상의 타락이 워낙 넓게 퍼져 있고 현실은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진보와 보수를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옳고

그림을 칼로 자르듯 말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과격하고 서툰' 것처럼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유연함을 가장한 곡필이 혼한 언론현실에서 다소 거친 직필의 힘을 맛보는 것은 차라리 신선하다. 잘 안 쓰이는 우리말을 의식적으로 골라서서 국어사랑을 실천하고 읽는 맛도 살린 것도 좋다.



■ 신종호(복새통) 편집장

△《한국인의 자서전》

우리가 보고 지각하는 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다. 나머지 수면 밑에 감추어진 무의식의 세계는 신화나 전설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신화나 전설은 상징의 옷을 입고 출현한다. 그 속에는 인간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 상징의 옷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가지고 오십년 넘게 연구를 한 김열규의 거대한 결실이 바로 《한국인의 자서전》이다. 한국인의 애절하고, 순박하고, 정감이 넘치는 인생살이를 일곱 개의 상징으로 풀어낸 이 책은 한국인의 삶과 미학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다. 이성적인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살이의 비의(秘意)를 풀어가는 저자의 깊고도 넓은 식견에 한번 감탄하고, 위트와 유머로 삶의 이면을 꿰뚫어가는 질펀한 입담에 또 한번 감탄한다.

△《죽음, 또 하나의 세계》

요즘 웰빙이라는 단어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것이 웰빙의 모토일 것이다. 그러나 웰빙의 정점은 '잘 죽는 것'이다. 죽음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할 수 없기에 '웰엔딩' (well-ending)을 준비해야 한다. 이 책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근사체험'에 대한 축적된 연구를 핵심내용으로 삼으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근사체험'에 대한 시비의 선입견보다 '근사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성과에 중점을 두고 읽는다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나비와 전사》

글쓰기는 사유의 결과가 아니라 사유를 구축해나가는 생성적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자 의의라 할 수 있다. 나비로 상징화되고 있는 연암 박지원과 전사로 상징화되고 있는 푸코의 사유를 각각 씨줄과 날줄 삼아 자신의 사유를 직조해 나가는 글쓰기 전략이 흥미롭다. 그 씨줄과 날줄에 새겨진 연암, 다산, 이옥, 옹녀, 변강쇠, 대장금 등의 흥미로운 소통 코드가 고미숙만의 문체적 무늬로 살아나고 있다. '글쓰기를 통한 지식의 재구성'이 너무 화려하다보니 '사유를 통한 지식의 재창조'가 옅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조우석 중앙일보 문화부장

△《우리 역사 과학기행》

대중과학서 영역은 한국출판의 블루오션. 그 안에서 길어올린 의미있는 과학사. 모든 면에서 흡족하다.

△《나비와 전사》

18세기 역시 파내면 파낼수록 의미있는 한국사의 분수령. 아직도 채 파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솔직히 백낙청은 '통일논의 라이선스'가 없는 분이다. 그런 분의 목소리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논의의 시발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리=(출판저널) 편집부